**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

**ㆍ진급자:** Grundschule 입학-김에스더, 이다솔, 졸업-강수정, 구요나, 박유라

**ㆍ매일성경:** 9,10월호, 배부-김성희

**ㆍ여선교회 월례회:** 오늘 2부 예배 후

**ㆍ제직회:** 다음 주일

**ㆍ181회 디아코니 축제:** 9월 10일 주일

**ㆍ지난 주 방문:** 오병주-오혜미

**ㆍ전출:** 김성수 목사 가족(본 주님의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ㆍ별세:** 민명희 집사 부친(8월 22일)

**ㆍ생일:** 황혜숙

**◆ 말씀일기 일정**

일/시89:19-37 월/시89:38-52 화/시90:1-17 수/시91:1-16

목/시92:1-15 금/딤전1:1-11 토/딤전1:12-20 일/딤전2:1-8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36독)**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8월 27일** | **9월 3일** | **9월 10일** | **9월 17일** |
| **예배기도** | 강일구 | 김영희 | 박종희 | 신일수 |
| **말씀일기** | 한상철 |  | 박성희 |  |
| **안내위원** | 신형만, 예배부 | 정기승, 예배부 | | |
| **헌금위원** | 강일구, 신일수 | 조경숙, 정수연 | | |
| **애찬봉사** | 밥상 다섯 | 밥상 여섯 | 다함께 | 밥상 일곱 |

35-35호 2017년 8월 27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7)

주일 1부예배: 12:15

주일 2부예배: 14:00

주일 유초등부 예배: 14:00

주일 청소년부 예배: 13:30

토요기도회: 07:00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목사/ 손교훈**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협동목사/ 이광열** Mike Lee

☏ 0211-4166 3284 HP. 0157-7388 7498

**교육목사/ 이재용** HP. 0157-5346 6942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 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Eingang …………………………………………………………………………………......... | 다함께 |
| ※송영/Eingangslied ……………………………………………………………………………… | 찬양대 |
| ※찬송/Gemeindelied …………………………… 31장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41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295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 강일구안수집사 |
| 말씀일기/Bibeltagebuch ………………………………………………............................  찬양/Loblied ......…………………………….......………………………….......…………… | 한상철 장로  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Predigt …............…마태 22:15-46…..….....……..….…. | 다함께 | |
| 설교/Predigt ……………...………. **논쟁을 넘어서1** ........……………… | 손교훈 목사 | |
| 찬송/Gemeindelied ………………………… 452장 ………………………………  기도/Gebet ………………………………………………………………………………………  봉헌/Kollekte ……………………………………………………………………………………… | 다 함 께  다 함 께  다함께 |
| 교제와 나눔/Bekanntmachung ……............….................................................. | 인 도 자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는 함께 일어섭니다.**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민36장 “기업 지키기”**

현대를 사는 나로서는 숨이 탁 막히는 이야기다. 이왕에 민수기 27장에서 남성들에게만 물려주던 기업을 여성들에게도 물려주기로 한 것도 실상은 개인의 남녀 평등을 중시해서가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지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었고, 본 장에서 ‘여성들은 같은 지파 내의 남자들에게만 시집가라’는 규칙도 개인의 권익보다는 지파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명령이다. 다행히 슬로브핫의 딸들은 모두 이 명령에 순종하여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지만(11), 당시에도 분명 계급과 지역, 인종의 경계를 넘어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었을 터인데…

한편 답답함에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 가문, 한 지파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이야기 아닌가? 아들 없이 죽은 형의 대를 잇기 위해 동생들이 형수와 관계를 가져서라도 아들을 얻어주려 했던 “계대 결혼 제도”같은 것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더욱 분명하다. 한 개인의 로맨스보다도 더욱 중요했던 것이 가족이었고 가문이었고 지파였다. 더구나 타 문화권-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소중한 여호와 신앙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 징벌로 그 땅마저 도로 뺏기고 포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이스라엘은 더욱 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을 말살하는 파쇼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의 권익 보호도 공동체의 권익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결국 각 지파의 기업을 지키고 보존하라(7, 8, 9, 12)는 것인데, 그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원칙은 함부로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다. 당당한 주님의 한 지파인 나에게 주신 기업, 결코 빼앗기기 않도록 잘 지켜야 할 기업, 그것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아닌가? 그 말씀 속에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 말씀 속에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가정도 꾸리고 목회도 하라는 권고, 가슴에 새긴다.

**◈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돕는 곳 ◈**

▶스펙트럼 교회(이광열 목사)

▶'겨자씨' 모임(2세 및 2세 사역자 위해 기도 및 후원)

▶NRW 평신도연합회

▶유럽 기독교교육원: 어린이 연합 캠프, 청소년 연합 캠프(JC)

▶유럽 밀알 장애인 선교회(이명선 총무)

▶유럽 코스타(청년수련회) ▶유럽 크리스찬 신문(이창배 목사)

▶예장 유럽선교회 ▶우크라이나 임현영 선교사

▶장학 지원 ▶북한 선교 ▶디아코니 협력 후원

▶굶주린 이웃 돕기 (케냐 총게노 고아원, 이은용 선교사)

▶기타 구제 사업 ▶선교관 기금 마련